

세계 지리학계와 연계된 발전과 도약 - 제30차 세계지리학회 참가 보고 -

주 성 재*

A Report on Participating in the 30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Glasgow, United Kingdom

Sung-jae Choo*

제30차 세계지리학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가 영국 스코틀랜드의 중심도시 글래스고(Glasgow)에 있는 컨벤션센터(Scottish Exhibition and Conference Center)에서 지난 2004년 8월 15일(일)부터 20일(금)까지 개최되었다. "One Earth - Many World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영국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가 주관이 되어 조직하였고, 국제지형학회(Joint International Geomorphology Conference)와 동시에 열렸다.

총 50여개국에서 1,8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국내·외 거주 학자 30여명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도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로서는 2000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에 역대 해외에서 열린 세계지리학회 중 최대 인원이 참석하는 성과를 올렸다.

6일간 열린 대회는 학술프로그램, 총회, 전시, 답사, 기타 사회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리학자들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들 프로그램들을 한국인 지리학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학술프로그램(Scientific Program) 및 답사(Field Trip)

이번 제30차 세계지리학회에서는 지리학 각 분야 400여개 분과에서 1,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들은 주로 각 학술분과위원회가 대회기간 내에 주최하는 In-Congress Commission Meeting에서 발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회기간 앞서 열리는 Pre-Congress Commission Meeting에서 발표된 논문을 합하면 이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대회기간 내 발표에 참여한 한국인 학자들의 논문(포스터 포함)은 총 34편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회기간 앞서 8월 9일에서 13일까지 버밍햄(Birmingham)에서 열린 경제공간위원회(Commission on Dynamics of Economic Spaces)에서 한국인 학자에 의한 논문 2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지난 6년간 위원장(Chair)으로 있었던 박삼욱 교수(서울대)의 노고를 기념하는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논문의 제목은 별첨 1과 같다.

대회 기간을 전후하여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 대한지리학회 국제부장,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Secretary-International Affairs,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Assistant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sjchoo@khu.ac.kr

일대에 대한 답사가 있었다.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아일랜드 일대 카르스트 지형 답사에 허우궁 교수(서울대)와 이정운 군(서울대 대학원)이 참가하였다. 또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스코틀랜드 북부 해안 해수면 변동과 해안퇴적물 이동, 해안침식 문제와 관리방안 등을 살펴본 답사에 서울대 대학원 류호상, 신영호, 김대현 군이 참가하였다.

2. 세계지리학회 총회(IGC General Assembly)

대회기간 중 세계지리학회 총회가 8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2000년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4년간의 실적을 보고·평가하며, 향후 4년간 계획을 논의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일이 주된 내용이었다. 세계지리학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의 Anne Buttimer 회장(아일랜드)이 의장이 되어 회원국, 준회원국을 포함하여 50여개국 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각 안전에 대한 보고, 토론, 의결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지리학회 박삼옥 회장, 이정록 총무부장, 그리고 필자가 공식대표로, 이기석 고문과 유우익 교수가 옵저버로 참석하였다.

3일간 다양한 안전이 논의되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차기 집행위원 선출과 차기 대회 진행상황 점검이었다. 먼저 이번 대회 직후부터 2008년 대회까지 일하게 될 차기 집행위원 선출은 각 국가의 추천을 받은 1명의 회장후보와 1명의 사무총장후보 그리고 7명의 부회장후보 각각에 대하여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 수석부회장인 이탈리아의 Adalberto Vallega가 회장에 선출되었고, 현재 사무총장인 Ronald F. Abler(미국)와 부회장인 Nikita Glazovsky(러시아), Changming Liu(중국), Markku Löytönen(핀란드), Lindisizwe Magi(남아프리카공화국), José Luis Palacio-Prieto(멕시코), Hiroshi Tanabe(일본)는 동일한 직책에 다시 선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지리학회의 추천으로 유우익 교수(서울대)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신청한 후보 전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차기 집행위원 선출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사실 지난 4년간 IGU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각 나라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우선순위가 뒤바뀐 집행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따라서 투표 전까지만 해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긴장감이 돌았다. 이런 상태에서 유우익 교수는 투표국 전원의 찬성으로 당선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우익 교수가 제29차 서울 대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른 점에 대한 모든 나라의 인식과 더불어, 집행위원 후보를 추천한 각국 대표단 중에서 대한지리학회가 유일하게 전 회원국 대표에게 유우익 교수를 부회장으로 추천하는 공식서한과 이력서를 사전에 발송한 점(별첨 2), 그리고 현지에서의 각국 대표와의 비공식적 만남과 한국전시관 운영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학회와 후보자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서울 대회를 겪으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한국 지리학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회장의 개인적 역량과 한국지리학계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2000년 기간에 부회장을 역임한 고이찬 교수 이래 두 번째 IGU 부회장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차기 대회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대회, 즉 2006년 호주 브리스번의 Regional Conference, 2008년 튀니지 튜니스의 IGC, 2010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Regional Conference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치러진 2012년 제32차 IGC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였다. 칠레(산티아고), 중국(베이징), 독일(뮌헨)의 3개국에서 대회 유치를 위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투표를 통하여 48개 투표국 중 독일이 24표를 얻어(칠레 17표, 중국 7표)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독일로서는 1899년 베를린에서 제7차 대회를 개최한 이래 무려 113년만에 두 번째 대회를 유치하는 감격을 누렸다. 특히 독일은 지난 1992년 미국 워싱턴에서 2000년 대회 유치를 위한 투표에서 우

나라에 패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발표와 투표결과에 대한 공손한 감사의 인사 등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총회에서는 지난 4년간 IGU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General Assembly Finance Committee)가 구성되었는데, 필자가 한국대표단의 추천을 받아 독일의 Eckart Ehlers와 벨기에의 Yola Verhasselt와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총회 기간 중 3번의 모임을 갖고 지난 4년간의 IGU 수입·지출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IGU 설립목적에 합당한 지출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강력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필자는 3명의 위원이 3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마지막 날 각국 대표 앞에서 발표하는 영광을 누렸다.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마케도니아와 페루의 신규 가입을 승인하였고,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회비 인상안을 투표를 통하여 가결하였다. 회비요율의 Category D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연회비가 \$1,875에서 \$2,250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 4년간 각국 지리학의 발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되었다(별첨 3).

3. 한국 전시부스 운영(Exhibition Stand)

이번 대회에서도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전시관이 운영되었다. 각국 대표단, 영국의 지리학 관련기관, 출판사, 민간기업 등 38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각국 대표단이 운영한 부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차기 대회 개최지 및 신청지인 호주-뉴질랜드, 튀니지, 독일, 칠레, 중국 등 총 13개였다.

한국대표단의 전시부스 준비는 금년 초부터 구상에 착수하였고, 6월 중순 전시부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를 비롯하여 박 경 총무차장, 황철수 학술차장, 안영진 국제차장이 수차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브로셔 및 전시관 디자인 전문가 채선미, 채수경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한국관 전시부스를 통하여 한국과 한국의 지리학적 바탕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

다는 판단 아래, 전시관 전체의 컨셉을 “Korea, the Land and People”로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두 개의 면 중 하나는 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남 보성 녹차밭에서 일하는 모습과,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응원 모습의 사진을 내걸기로 하였다. 또 하나의 면에는 대동여지전도를 가운데에 놓고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 도면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도면을 좌우에 배치하여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방된 면 중 하나에 제29차 서울대회의 포스터를 게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개최국가임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이 모든 게시물들은 기초 데이터를 구하여 규격에 맞게 수정·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시 책상 두 개 중 하나에는 우리나라 GIS 연구 현황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한국소개 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상영하였다. 또 하나의 책상과 브로셔 스탠드에는 대한지리학회지, 한국의 지리학 영문 책자, 한국 지리학 또는 국토? 지역계획에 관한 영문 책자, 영문지도책 등을 다양하게 전시하였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동북아시아 도면, 대동여지전도, 외교통상부가 제공한 동해관련 영문책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지도,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한 한국소개 책자 및 지도, 대한지리학회 브로셔 등을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학회 브로셔는 국·영문 혼용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작하였는데, 브로셔를 펼치면 뒷면에 서울의 옛 지도인 도성도가 보이게 하여 소장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한국전시관을 통하여 한국과 한국의 지리학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주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한다. 대형 이미지사진과 도면은 각 나라의 방문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특히 서울대회의 포스터는 이번 글래스고 대회보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따뜻했던 지난 대회의 향수를 되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동해 지명관련 자료들은 모든 나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외교적 목적도 달성했다고 본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인 참가자들이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정보센터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현지 전시관의 운영은 여러 지리학 가족들의 도

움을 받았다. 전시관의 설치와 철수 작업을 위하여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영훈 박사가 일부러 와주었고, 글래스고대학 지리학과에서 지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종연 선생이 대회 스태프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부스를 지키고 안내하는 일에 최영은 교수(건국대)와 박수진 교수(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자원해주었고,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석·박사 대학원생들, 그리고 미국 뉴저지주립대학 박사과정 최광용 선생, 텍사스대학 박사과정 이종원 선생이 함께 애써주었다. 전시관 운영의 성공은 필자의 항공 짐이 늦게 도착하여 전시물 게시를 위한 도구를 현지에서 급히 조달하고 학회 브로셔를 한국에서 다시 공수하는 급박한 상황을 단지 기억에 남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남게 해주었다.

4. 사회 프로그램(Social Program)

세계지리학대회는 고유한 문화를 지닌 세계 각지에서 모인 지리학자들이 만난다는 점에서 교류와 친교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대회 기간 중에 대회장 인근 과학관에서 글래스고 시장 주최 리셉션과 글래스고대학에서 총장 주최 리셉션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별도로 구매한 공식 만찬은 카테일파티, 스코틀랜드 고유의 양고기 정찬과 위스키, 그리고 스코틀랜드 민속음악과 춤 등이 어울려 매우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특히 만찬은 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학술프로그램도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리셉션과 만찬은 특별한 순서나 행사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지극히 서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철저한 사전 안내와 예식,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전제되는 우리의 행사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어 낯설기는 하였으나, 각국 참석자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인 참가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사회프로그램은 한국인만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었다. 대회 중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18일(수) 저녁시간에 대회장 인근 중국음식점에서 만찬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학

회 박삼옥 회장과 허우궁 고문을 비롯하여, 유우익, 이희연, 류제현, 이금숙, 이정록 교수 등 대부분의 대회참가자, 국내·외 석·박사 대학원생, 가족 등 30명 가까이 참석하여 대화와 음식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5. 종합 평가의 향후 과제

이번 제30차 세계지리학대회는 지난 서울대회를 통하여 높아진 한국지리학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먼 거리와 비싼 항공료, 등록비, 체재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한국지리학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세계지리학연합 부회장을 배출하는 외교적 성과도 올렸다. 뚜렷한 컨셉과 이미지를 가진 전시관은 방문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비싼 등록비에 비해 제공되는 것이 별로 없는 문제, 지나치게 철저한 참가자 등록 관리, 편의시설 부재 등 이번 대회에 대한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불만은 4년 전 서울에서의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한국 지리학의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세계지리학계와 지속적인 연계를 갖고 동반 발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리학 학문 고유영역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인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지리학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2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IGU 학술대회(Regional Conference 또는 Congress)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각 연구자의 학술일정을 IGU 캘린더에 맞추어 짜도록 하고 이를 위한 학회 차원의 정보제공과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지리학계와의 실질적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학술분과위원회(commission)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위원회에 운영위원(steering committee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리학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울대회 이후 실질적인 역할을 증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오랫동안 경제공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삼옥 교수의 퇴임으로 위원장

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전무하게 되었다. 앞으로 각 학술분과위원회가 주최하는 년차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운영위원과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수를 늘려서 세계지리학계와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우익 교수의 IGU 부회장직 수행으로 앞으로 더욱 좋아지겠지만, IGU 또는 국제 학회 움직임에 대한 정보수집과 적절한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인다. 일례로 금년에 고등학생 대상의 세계지리올림피아드가 사정에 의하여 세계 지리학대회 장소인 글래스고가 아닌 폴란드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대회 총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일이다. 우리나라 지리올림피아드 입상

자가 세계대회 참가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아쉬운 일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제30차 세계지리학대회는 한국지리학이 세계지리학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발전과 도약의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지리학자 개인들이 담당할 역할과 학회 차원에서 지원할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하다 하겠다.

최초투고일 04. 09. 14

최종접수일 04. 09. 18